【一】 第二千四百三十四號

The Chosen Ilbo. (The Corea Daily News) Seoul

【日曜日】 昭和二年六月十九日

朝鮮日報

十八日夕刊

發行人 安在鴻 編輯人 白寬洙 印刷人 金炯元
發行所 朝鮮日報社

時評

槿友會의發會式

×

女性의運動이 업지못할이때에 女性의團結과 女子의地位向上을 標榜하고 單一한 旗幟밑에서 自覺한 女性들이 意識的으로 會合을圖하야 槿友會를 發起한것은 朝鮮社會의 沈滯한現狀에잇서서 一般民衆에게多大한刺動을준것은 이제다시 喋喋히말할것도업스나槿友會의誕生이 社會一般에 큰衝動을준것만콤 該會에對하야期待도多大히가진것이다

×

그럼으로 槿友會自體가社會一般에對하야公公然히그自體의生成動機와또 엇더한目的意識下에서結合하고잇는것과 今後에如何한方法으로써目的意識을遂行할것과가큰것은스스로表明함이업섯다할지라도外部에서는 오히려重大視하여온것이다 그런데 오날에와서 該會가 發會式을擧行한것은 該會의存在를社會一般에 正式으로闡明하는同時에 該會의目的意識이社會一般에 多大한貢獻이잇다는것과 이를實行하기爲하야努力하겟다는것을公言하는宣誓式이라고할수잇다 萬一그러타하면 槿友會가宣誓式을盛大히擧行한그것만콤社會에對한 重大한責任感을가저야할것이다

×

宣誓有無에不關하고 그들의標榜한綱領——女性의團結과女子地位의向上은 此를爲하야 奮鬪치아니치못할 時代의要求이다 그러나團結도다만團結로맛처서는 意味업는團結이오地位의向上도性의讓步를어든向上이면 意味업는向上이다 團結은活動을意味한團結이되어야할것이오 地位向上은自己스스로占領한 地盤우에 세운地位라야할것이다 또한團結만을爲한團結은 理論에잇서서는可能하나 實際에잇서서團結할만한動機와事件이업시는不可能하다고생각한다 그럼으로 槿友會로서는 社會的으로意義잇는運動을 니르키어야할것이며 地位獲得만을爲한地位向上은 잘못하면名實이相符치못할念慮가잇는것이니 이도亦是 先覺女性의緻密한作戰計劃과 冷靜한現實批判을要하는것인가한다

×

이러한意味에서 槿友會自體의實際事業을如何히하여갈는지그것을보면 勿論일일이어니와 처人거름을내놋는이때에잇서서 吾人의危懼視하는것은 想像以上의 우리의惡條한現實을보고 그대로失望치나아니할가하는것이다 모름직히根基잇는奮鬪를바란다

大元帥就任은 張作霖下野의前提?
戰敗한此時에急就任何故

(奉天十八日發) 張作霖氏의大元帥就任에對한各方面의觀測은今後南方에對하야積極的態度를取하리라고豫想하는者와張下野의前提인同時에妥協拒絕의意思表示한것이라는者의兩者가잇다後者의語하는바에依하면奉軍은河南을撤退하지안코總司令部를灤州에置하든當時에楊宇霆氏는某日本懸意者에對하야今番戰爭은勝算이업고張氏가大元帥에就任한다면敗戰에陷할터임으로今日以後外에는그時期가업다고한일이잇서서그當時부터이미如斯한敗戰이잇슬것을豫期하고大元帥就任을急히하는데그써보다以上의敗戰後인今日에實現이됨은下野의前提에틀림이업다

大元帥承諾
이어서重要會議召集

(北京十七日發) 張作霖氏는十七日午後正式으로大元帥就任을受諾하는同時에安國軍의各軍長은順承王府에서評議會를開하고大元帥推戴後의軍事政治에關하야重要討議를行하엿다此日順承府는軍閥嘔歐의滅火가되어門前은自動車가市를成하고午後四時半에는佛國公使가第一先次參入하야祝辭를述하엿더라

八白大安日涓吉

(北京十七日發) 張作霖氏의大元帥就任의通電은今十七日夜에發하엿다그런데孫傳芳氏는大元帥就任式推戴일通電을發送하는直後에疾風迅雷的으로今日擧行하고各將條는直時聯絡으로斷행할것이라고主張하엿스나張作霖氏는曆書를뒤져그리며十七日은九星이九紫佛에게滅하는最惡日임으로就任式은八白大安인十八日로延期되엇더라

就任後必宣言

(北京十七日發) 張作霖氏의大元帥推戴式은孫傳芳氏等의滿京中에行하기로되어이미準備를開始하엿는데十八日中에順承府에서擧行하게될터이다그런데孫傳芳以下各省長全部가列席하야擧式과同時에張作霖氏는就任宣言을發하리라더라

孫中山前例를模倣

(北京十七日發) 張氏의大元帥就任式은十八日午後四時順承府에서擧行하기로決하엿다儀式은先年廣東에서孫文氏의大元帥就任式의形式을取하야盛히賀宴하게擧行할터이더라

懷仁堂에서擧行

(北京十八日發) 大元帥就任式은十八日午後三時懷仁堂에서擧行하고同五時부터外交團의祝辭를受할터인데外交團은거의無關心의狀態이더라

生命잇기까지 討赤을決行
◇政治는賢豪와討議
【張作霖氏各方面通電內容】

(北京十七日發) 張作霖氏는十六日蔣介石氏외의妥協希望及國民會議開催의意見을否하야局面의展開를期하려고左의通電을各方面에對하야發하엿더라

共產主義는世界革命을標榜하는外땀에此를討伐함은世界人類의共同事業이다討赤의志를가티가지고잇는者는黨派의別을不問하고余의同志이다余는終始一貫하야生命이잇슬때까지討赤決行의志를버리지안흘것이오主義政策은國利民福을基礎로하고國家의大權은國民에게잇다政治는常規에쌀아賢豪한士와討議하야此를解決할것이다余는討赤事業의外에何等의政權을갓지안엇다

新內閣多併合

(北京十七日發) 張作霖氏의 …

大元帥就任後 潘內閣곳組織

(北京十七日發) 潘復氏의新內閣은十八日張作霖氏의大元帥就任式後直時組織을命하게될터이더라

大元帥就任後組織될安國軍政府는이미組織에着手되어新內閣을左와如히改革을議論中이더라

一、陸軍部內 軍部 參謀部 航空部를合倂하야軍事部로함
二、從來의農商部를農工部實業部의二에分함
三、各部에亘하야黨員을大淘汰함

張作霖氏의 妥協意志는確實
첫재財政의困窮으로

(東京電) 張作霖氏會議의結果畢竟大元帥에는結局安國軍이諒解가되엿는데張氏가大 …

張作相氏 東三省留守

(北京十七日發) 十七日 …

外交總長은 汪氏呼聲高

(東京電) 安國軍新內閣의外交總長에는駐日公使汪榮寶氏의呼聲이高하더라

內閣制變更에 列國은反對

(北京十八日發) 內閣制變更의結果鹽稅及煙草稅事務는財政 …

安國軍의 今後方針!
軍隊充實、內閣成立

(北京十七日發) 安國軍은今後의方針을左와如히發表하엿더라

一、各軍의名稱을安國軍에統一하고從來의山東軍、直隸軍、孫傳芳軍의名稱을廢함
二、內部의整理를完了하고北方으로大同團結하야、大元帥推戴를決定하엿다如斯하야潘內閣成立後、中央各機關의改廢整理를行함
三、軍事에關하야는얼마간守勢를取하고그間軍隊를充實함
四、妥協問題는當分두고大元帥府의新內閣으로하야 …

各軍名稱廢止 —安國軍에統轄—

(北京十七日發) 安國軍은張氏의大元帥就任後도그名稱을存續하나오직山東軍、奉天軍 孫傳芳軍等은其名稱을廢止하고安國軍總司令部에此를統轄하기로되엇더라

日本山東出兵 第二次抗議

(北京十七日發) 外交部는十七日午後山東出兵에對한第二次抗議를日本公使館에送達하엿는데그要旨는中國國民의猛烈한反對에鑑하야即時撤兵을要求한것이더라

馮氏密使來哈
或種의運動을計劃?

(哈爾賓十七日發) 馮玉祥氏의密使二名은秘密히來哈하야露國側과接觸하는中인데時機의到來를기다려或種의運動을起할計劃이라고觀測하더라

眞正한軍縮의 大目的達成切望
公平方法과公正協定
【米次席代表서少將의聲明】

(제네바十六日發) 米國次席代表서少將은新聞記者團에對하야聲明書를發하엿더라

一、米國政府는國際的으로…

三國全權會議 開會前 組織을協議

會議陣容完成

(제네바十七日發) 三國海軍縮會議米代表「기부손」氏一行十七日到着、英代表「뷔릿치만」海相以下는十九日到着할터임으로會議는二十日開會할터이다 …

革命軍益益猛進
曲阜兗州運命朝夕切迫
孫軍은濰縣에 輸送開始

(上海十七日發) 徐州에서북더온報道에依하면津浦鐵道沿線의山東軍은目下曲阜兗州方面에防禦工事를하는데國民軍의左翼軍은이미泗與山을突破하고曲阜에肉迫中이다또中央部隊는兗州에向하야猛進함으로同地의運命도이제는朝夕에迫하엿다고傳하더라

蔣介石徐州着

(靑島十七日發) …午前十一時二十分에徐州에到着 …

東方會議重要視
投機的外交도包含

服制大改正
一般文官도

委任統治會議 獨逸도參席

八面鋒

對波問題로 赤軍主力歐露集中
極東軍團도分散配置

所謂軍縮豫備會議 (中)
英國에서 朴錫胤

五、五、三比率 日本은大反對
◇軍縮代表에게訓令

對露通牒을發送
第三國際의活動으로

國際聯盟 理事會遂終了

鐵筆寫眞

가뎡 부인

직업부인의건강(二)

부인의직업은건강에무해 돌이어유리한뎜이만타고

어느의학박사담

의사의 립장으로써 말하면비록그러한 소질(素質)을 가진부인일지라도 류산(流産)을 막을수단이업는것은 아니올시다 다만한가지 곤난한점은 특종계급사람들만이 희망할것이요 금전문뎨와 료양긔일(療養期日)의관계로 누구든지 희망할것은되지못합니다 또한어쩌 말한바와가티 선텬성으로 약한데질을가진자가 직업부인중에 만흐냐하면 결단코그러치는 아니합니다 오히려 일반가뎡부인중에 약한이가 더만흔것입니다 대개가뎡부인에 비교하야 직업부인에는 흔한이가 만흔사실은 류산(流産)이직업부인에게 적다는통계상사실이 가장웅변으로 설명합니다 산후에자궁이 복구하는상태에대하야는 장시일고요히 잘조섭하는이가 완전히 또는빨리 낫는줄로 이제까지 미더왓고그것이 직업부인들에게 산후조섭의 위협이엇습니다마는 최근독일의 엇던시료병원(施療病院)에서 연구한바에의지하며 속히산욕(産褥)을떠나 몸을움직어는것이 자궁의복구가 빠르고완전하다고 발표하엿답니다 즉평소에 로동을하는부인이 안락하게거처하는부인보다 도속히건강을 회복하는것이라는것이 증명된것이니 직업부인은 부인위생상뎍당한 디위에잇다고 할수잇습니다 근래의 직업부인을보면다리를 척척뛰어 선듯선듯남자의걸음처럼 걸읍니다 이것은신톄가완전히 발날한것을 표시함이라 하겟습니다 그리고직업부인이특별히 골반(骨盤)이나 생식긔가 완전히발육하는것은 임신(姙娠)도쉽고분만(分娩)도경한것을보아 자연히알것 이올시다 이것은통계상으로 그결과가나타나는것 입니다 또한직업부인 독특히의자에 걸려안는사람은 부인병이만타는것은 상당한곳에 표준을 삼는그릇된의문이라할수잇스나 이 사실만을 취하야 작업과병의관계를결시킬수는업습니다 그런데직업부인의병을 말하라면 이와가튼사실을 이저버려서는 안되겟습니다 직업부인이 되지아니하면 안될부인은 여러가지 사정으로말미아마 부득이 여간한병에는 쉬이지를못합니다 치료를 잘하지못하고 일을하는까닭으로 병세가 골수에들어가 나종에는 치료하기에 힘이 들게되는것이올시다 그럼으로 이것은직업그것이 병세를 진행케한것이아니요 다른사정이 원인이 되는것입니다 공장에서 일하는녀공(女工)들의병중에 가장중한것은호흡긔병이요 부인병은 아닙니다 이사실도 직업부인이 되엇다는까닭으로 부인병에 걸린다는망설을새트릴한례(例)가된다하겟습니다 사람의 건강은 영양(營養)휴양(休養)수면(睡眠)위안(慰安)주위의 공긔가 쌋쌋하고탁하다는데 좌우되는것이니 우에말한중에 조처못한 조건을가진직업을 엇게되는 경우에는남녀누구든지 동일하게 위생상해를밧는것이올시다 뭇으로 굿세히말하고저하는것은 부인의 직업은위생상무해하다는주장을다시한번 거듭하야 세상사람의 오해를 고치랴합니다——(끗)

稀有의盛况을일운 槿友會發會式

各地團體에서祝文도遝至

근우회발회식(槿友會發會式)은 예뎡과가티 십칠일 하오팔시부터종로중앙긔독교청년회관에서 이백명회원과 오백여명방텽인으로써대성황속에열리엇다집행위원유각경(兪珏卿)씨의간단한개회사가잇슨후김선(金善)씨의떠혁보고가잇섯고황신덕(黃信德)씨로부터금후사업방침(今後事業方針)에대한말이잇섯스며 우의단데인 신간회(新幹會)대표 박동완(朴東完)씨와 중앙녀자청년동맹(中央女子靑年同盟)대표 심은숙(沈恩淑)씨의간곡한축사가잇섯다 김석경관의중지로인하야 신간회북부지회대표리황(李晃)씨의축사는 유감이나마중도에그치게되고 회원정종명(鄭鍾鳴)씨로부터각단데에서 폭주한 삼십여통의 축문축뎐을 랑독하엿다 이로써발회식은 끗을막고 련하야 긔념강연회가 열리엇스니회원중김은실(金恩實)김사라(金師羅)량씨의 피아노 병탄으로 지금까지소조하고 박박하든장내의공긔는 매우부드럽고 평화스럽게 변하엿다 회원김순복씨가 근우회의 강령중하나인녀성의 단결(女性의團結)이라는 데목으로열변을토하니 만장청중의정신은 마츰내 도취하고야말엇다 그리하야극도로긴장된공긔는 회원리숙라(李淑羅)씨의선녀의옥음가튼 청아한곡됴청악에 다시아름다운 화원과가티밧귀엇다 다음으로신간회의김준연(金俊淵)씨가또한그회의강령중하나인녀자의디위향상(女子의地位向上)이라는문뎨로강연을마치고유각경씨인도로장내가 떠나갈듯이 장하고쾌한근우회만세 삼창으로 밤널시십오분에 폐회하엿다더라

昇天하는목숨

金海剛

【一】

萬丈이나 싸히고싸힌 안개를 쳐쳐헤트려고 쑥ㅡ소사올으는 붉은해를안호려는 이마음이어늘 압人길이 험난함을 두려워 물어업드릴것인가?

【二】

새벽人바람에 가슴에 어는 붉人길은 더욱굽하지지안는가? 붉人길을 드내는 나의숨人결이어늘 붉은해를 안흐려 다름질처든 걸음을 어이 멈출것이냐?

【三】

쇠사슬로 몸人동이는 얽을수야 잇스리라마는 泰山을들어눌러도 피人줄기 빗과가튼 산혼이야 어이잡어매기나 할것이냐?

【四】

가슴을 벌려주러니 쏘아는보라 활촉에 마저 엉뭉은 핏돌린다할저언정

【五】

광광ㅡ소수치는 피는 永遠히 붉고뜨거우리니 오ㅡ昇天하는 붉은목숨을 안흐려 이걸음은 내닷노라 急迫한나의숨人결은 불人길을 드내나니 압人길에 닥치는것이 바위어든 쇠어든 녹이리라

五、二四 나의詩 『목숨篇』에서

사진은근우회발회식광경

리거기야이

▲지난십칠일밤에근우회발회식이 종로청년회관에열리엇다 ▲사회에서 그회에 긔대를 엇더케 만히가젓다는것은각처의각단데에서온축사원은것을들어도알수잇섯다한다 ▲축사에도형형색색이잇서 가장추상뎍문구도잇고 구데뎍문구도잇서서 읽을째마다듯는사람도 긔분이달랏스나가장진긔하고 련진스러워 들리는것은 리화녀자고보 긔독청년회원붇동의『엄동설한에 칠령든초목도 봄바람을맛나서 새싹을내고 심산궁곡을 둘러나온시내물은 평야에이르러 대하가됩니다 ……(중략)……사천년갑고갑흔

檢討文(二)

評論의評者柳葉氏에게

金泰秀

三

다음으로 氏는金東煥君의『時調排擊小議』를評하여 말슴하되『斷手之歎』이업도록하라고하엿다

그러나 나는그말을돌오氏에게 들인다 斷手之歎이업도록 이 現實에눈이뜨소서

『朝鮮의 情調는 늘平和를조하하고 夢想을즐거워하는長閑한魂의喜悅을求하는우리民族이엇다』 나는이朝鮮의情調를사랑한다 道德으로君子ㅣ人格者를仰慕하든 그時代를 實現하기위하야 現今도싸와가는것이아닌가』

이러케 대답이게무슨말슴이십니까 이 가슴막히는소리만가려가시면서하시면 도모지아모말도못하겟습니다 率直하게말하면 나는 여긔를읽고 氏가적어도 回甲은넘으신七十갓가운ㅣ머리에는관쓰고 道袍입으신어룬인줄로알엇다 웨그러냐하면이現實을늘으시는만큼 압날도몰으시기때문이다 만일그러치안타면 나는신이 고무신으로 관솔불이 던능으로변하여도 오늘에 잇서서도 뿌르조아에아첨과屈從이나팔어서 자리도업는地位를 근근히이어가는 意識도업고 自覺도업는『재인』이나광대가 할일이아닌가하고생각햇다 웨그러냐하면『道德的으로君子ㅣ人格者ㅣ를仰慕하든그時代를實現하기위하여 現今도 싸워가는』朝鮮의現今은 아니니까말이다

그리고 例의超越主義를 뒤집어쓰고서『帝王이나學者僧侶는사람이아니나』고 떠드시니氏는 뿌르階級意識이라도 좀더 깁흐게뜨시라고 반갑지안흔勸告를또들인다 내가 氏를代身하여말하겟다

ㅣ너나 나나 다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람인내가무엇을感覺햇다는것은 사람인너도 꼭가틀것이다 다시말하면 내가조하하는것은 너도조화하는것이다ㅡ流의論理學的藝術論이다寬厚長者이시다 그러나氏여 大闕안에서 龍床라고게시는이가생각하는것과 진흙속에서 나온발들이엇더라는것은 잘발고잇다

지속에서 벼가붙어지게일해주는사람의感情이가트단말입니까 藝術보다도『階級』을압으소서 그것이실컬닝氏에게 차라리沈默을勸한다 남을 그르칠려가 잇기때문이다 競走者압헤 거더채이는 조각돌가티ㅡ

時調가엇더타는것은 金君이充分히말햇스니나는더말치안는다

그리고 다음에金基鎭君의『第六回鮮展印象記』를 評하신것은나는 鮮展을보지도못하고또素養도업지만金君의印象記만멀리안저읽어도君의批評的態度가엇더하다는것은足히알겟다 그리고 여긔에서도 氏는『果然藝術의 眞을表現하는데에階級云云될연이나한말인가』하는藝術聯에서

放送 十九日

라듸오 프로그람

午後〇、三〇 『피아노토리오』第一바이오린 마스네作丘久二 『카스테르얀스터카나』第二바이올린 부라가作吉田春雄 『엔젤세레나데』피아노稲田平馬

一、〇〇 講演 雄辯研究의必要와其方法 崔華淑

一、五〇 天氣豫報

二、〇〇 『뉴스』

四、三〇 東京大角力狀景

六、〇〇

六、三〇 童話 改譯『월림 맘쾰』佐田至弘

科學漫談 恩賜紀念科學舘長 重村儀一

義太夫 語藤富富士

管原傳授寺小屋三味線 竹本奈良梅

連續新捕物奇談 解說 假面을脫하고(第二席) 『뉴스』

放送映畫劇 演紀新座同人 橘大隊長 伴奏指揮 小川旭

『라듸오뜨라마』 海藤 라듸오劇研究會

朝鮮音律 金相淳外三名

時報、翌日順序發表

天氣豫報 曇

◇溫度 十八日 ◇比較 十七日 ◇日出 午前五時一〇 ◇日入 午後七時五六

키일흔帆船

李益相 作 李靑田 畵 〔156〕

창호는 뒤도 돌아다보지안코 허동지동 뎐차뎡류장으로 나왓다 그가오자 뎐차는 홱떠나바리고 말엇다 다음뎐차는 곳되돌니어 오지안햇다 한참동안 서서 뎐차를 기다리는동안에 그의마음은 여려가지로 들기 시작하엿다 『내가지금 어듸를 가랴고

버리고말엇다 다만 자긔의태도만을 상대자에게 분명히뵈일따름이엇다 그러치안흐면 시비나곡직을 가릴것업시 허노코『요 요망한계집! 사나희의감정을 얼마동안가지고잘 놀앗지!』하고 빼도(罵倒)하거나 그러치안흐면『당신이 하자는일이면 무엇이든지하겟소

어 결단코허락지 안햇다 이러케 가는것이 결국 아무려한의미업는것을 그는 알엇다 이러한생각에 한참 정신을노앗슬째에 어느듯 광화문통뎡류장에 이르럿다 그는그차를 되집허라고 다시 자긔집으로 돌아갈생각도 업지안햇스나 그러는것도 쑥스러운듯해서 여려승객을밀어 뎐차를 내렷다

『엇잿든 한번만나보지 내의태도를, 선명히하자 하고그는 다시 동대문행차를타고 종로삼뎡목에와서 나렷다 그리하야 바로장사동혜경의집으로 차저갓다 창호는 혜경의문압헤 와서발이 잘떼어지지안햇다 오기는왓스나 대단히창피한생각이낫다 그러나 여긔까지왓다가 말한마듸도해보지못하고 뒤통수를뵈이고 돌아서는것이 더창피한생각이 낫다 그는 용긔를내어 대문안으로 들어섯다 마침 행랑어멈이안에서나왓다 『오래간난에 오시네! 시골가섯드랫서요?』하고행랑어멈은 반가운듯인사를한다 창호는 행랑어멈을 잘맛낫다생각하고 혜경의 잇고업는것을물엇다 혜경이가 창호오기전에 엇던녀자하나와 또청년하나와 함께 나아갓다는것을 어멈의말로자세히 알엇다 창호는 하는수업시 그대로돌아서서나왓다 혜경을만나지못한것이 돌이허 무던히 된일이라고 생각도낫스나 그의가슴에는 질투(嫉妬)의불길이 다시하나 더일어난것은 사실이엇다 함께 나아갓다는남자? 그가 엇던자일가ㅡ그는 혜경이란녀청을 수레에다가실코 어느곳이던지 채쪽을마저가며 헐덕숨을 쉬며 돌아다닐자일가! 그러라 분명히 그런자일 것이다ㅡ그러면 또한녀청은 누구일가 혜경의친우 혜숙이일가? 그리고 그남자는 혜숙의사람일가? 이러케 생각하매 질투의불옷이 좀사라지는듯하엿다

이러케 나왓나? 하기 불을 켬 『혜경을 차저보고 무책임한것을 직접으로 우나 물어볼까하고ㅡ』하는 대답밧게 그의 입기에서 땡소가 떠돌앗다 『물어보면 무얼해! 모든것을 한째의꿈으로알고 이저바리자 ! 』이러한 불의집이 그의 산란한마음을 더욱 산란케하엿다 그러나 내친걸음을 돌으키기도 앗가운생각이낫다 그는 뎐차에 몸을 실엇다 지금가서 혜경을만난다 고하자! 그째에 그에게 무슨말을 할가ㅡ이것은 그가 생각해본일이 물론업다 거저 분김에 뛰어나온 그에게 그러한 랭정이 잇슬리가 업섯다 그가 뎐차에 안저 갑분숨이 개이고 머리로 모혀들엇든피가 제자리를 차저 흘러내려갈째에 비로소 혜경을 만나면 무슨말할것을 생각한것이 엇다 생각하고보니 별말이업섯다 혜경의편지가 모든말을 다해

이다 그리고 당신을 보호하기위해서는 한울끗단쯧까지라도 중실한종이되어 매도하는것은 항복할것이 소이다』하고 항복하여 통쾌하지마는 자긔의 얼굴이 의손으로 똥칠하는것이 항복을한다면 혜경의 눌러들수잇는지 모르나 존심이 엇다 하겟다 자긔가 지라하 호하

……산채로파뭇고다라나

……의남편 최창성(崔昌成)(三三)은 그어린것을 극히미워하다가 필……(松千里東鮎峰山)에 올라가서산것을강보에싼채로무더버리고이……다고한다 그래도 어리석은마음에 남편이멀리이영을 떠나자고……되엇다 그리하야 전긔두부부는 일본녕사관 경찰서에서평……事(館)의손에대포되어 평남평원경찰서(平南平原警察署)에넘기……생장을하야다 는것은고금에그류가업는일이더라(평원)

밀수입하다

……